

르포 - 총선 최대 격전지 '낙동강 벨트'를 가다

“새누리는 질리고 민주당은 미덥잖고”

野風 '문성길' 연합전선 민심 요동 “MB정부 실정 심판” “그래도 1번” 대선 전초전 與野 민심잡기 사활

“분위기는 좋는데,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유권자들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4·11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 벨트(낙동강을 끼고 부산 선거구)’의 현재 민심이다.
민주당의 ‘문성길’(문재인·문성근·김정길) 트리오가 연합전선을 편 채 새누리당 텃밭을 공략하면서 낙동강 벨트의 민심은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다. 친박(박근혜) 성향이 강한 부산 낙동강 벨트에서의 여야 싸움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시계 제로(0)’ 상황이다. <관련기사 3면>
부산의 민심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현 정부의 실정 탓에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이 크지만, 민주당에 대한 믿음도 그리 탄탄치 않지 때문이다.
17일 오후 3시 부산 사하구 장림2동 민주당 조경태(사하 을) 국회의원 사무실. 민주당의 유일한 부산

현역인 조경태 의원(재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정길(부산 진을) 후보와 문성근(부산 북·강서을)·최인호(사하갑) 후보 등이 참석했다. 4층에 마련된 10평 남짓한 사무실과 건물 복도·계단, 건물 앞에는 500여 명의 지지자로 가득 찼다. 지지자들은 “4·11 총선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고 함성을 내지르며 후보들을 격려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지지자들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막상 거리의 시민들은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듯했다.
시민 고영삼(54·회사원)씨는 “경기는 안 좋고, 물가는 상승하고, 이러한 현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도 새누리당을 또 찍겠느냐”며 “하지만, 민주당도 영 미덥지 않아서 아직은 고민중”이라고 고심의 흔적을 드러냈다.
택시기사 김모(51)씨는 부산 민심에 대해 “아직은 모르죠, 대부분의 시민이 새누리당을 욕하고 있긴 하지만, 투표 당일 ‘그래도 새누리당이제’라며 다시 찍어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젊은 층에서는 ‘이번에는

바뀌보자’는 의식이 강한 것으로 보였다.
진모(여·37)씨는 “20대와 30대, 40대 초반까지는 그동안 서민을 외면해 왔던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이 대단히 크다”며 “그동안 선거를 외면했던 주변 친구들도 ‘이번 총선에는 투표에 참여해 반드시 새누리당을 심판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지지자인 김영미(여·61·자영업)씨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은 크지만, 그래도 부산 사람들은 여전히 한나라당(새누리당)”이라며 “그래도 노풍(노무현 바람) 탓에 문성근, 문재인이 당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문성길 트리오”가 전진 배치된 ‘낙동강 벨트’의 경우 공단을 끼고 있고, 서민층과 젊은층이 상당수여서 총선 승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과거 어느 때와 달리 분위기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2% 부족한 느낌”이라며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근 최고위원은 “부산시민들이 서서히 마음을 정해가고 있는 게 보인다”며 “새누리당의 실정을 심판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길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 영도구’를 버리고 보수층 색깔이 강한 부산 진을 선거구로 택하면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
김 후보는 “영도에서 편하게 출마했다면 좋겠지만, 부산의 중심인 부산 진을 선거구에서 바람을 일으켜야만 낙동강 벨트를 비롯한 부산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어려운 선거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부산 진을 선거구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야권연대에 합의한 곳”이라며 “야권연대를 통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는 민주당연합 문제인 후보가 지난 17일 패범동 상가앞에서 지지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문성근 후보가 18일 북구 금곡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찾은 지지자를 호소하고 있다.



부산진을에 출마하는 민주당연합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난 17일 부산사하구의 조경태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자들과 환호하고 있다.

민주 광주 북을 재경선 가나

서구 갑·해남완도진도는 재심 신청 수용

민주당연합 광주·전남지역 예비후보들이 제기한 재심 신청이 대부분 기각된 가운데 광주 서구 갑, 해남·완도·진도 지역 재심 신청이 인용된 것으로 알려져 최고위원회의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인단 오류로 파문을 일으킨 광주 북을 지역구의 경우, 서구 동천동 주민들의 선거 참여가 부구를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면 재심 인용결정을 내리고 최고위원회에 후보 경선 방법에 대한 최종 결론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연합 지도부 인사는 “사전 선거 운동 등 문제가 심각한 후보의 경우, 자격을 박탈하고 국민경선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재경선을 실시해야 한다”며 “재경선의 경우, 후보 공천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긴급 여론조사 등을 통해 후보를 선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광주 관산 갑을 비롯, 전남 나주·화순, 고흥·보성, 영광·장성·함평·담양 지역 예비후보들이 제기한 재심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北 “내달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북미간 합의 위반 논란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15일)을 맞는 다음달 장거리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남북, 북미 간은 물론 국제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지난 1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 주석 생일을 맞으며 자체 힘과 과학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담화에서 “이번에 쏘아 올리는 ‘광명성 3호’는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 위성으로, 운반로켓 ‘은하 3호’는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사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는 김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강성국가 진입’을 선포하고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다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달 23~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미국과 합의한 상태에서 내달 ‘광명성 3호’ 발사가 이뤄질 경우 북미 간에 ‘합의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북한이 발표한 대로 실용위성을 발사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필뉴스>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광주지방법원 형사단독판사를 맡고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새출발 하게 되었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 주요 학력 및 경력 ◇
- 광주 삼례시 오동대학교 졸업 (25회)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86학번)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1997년)
- 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2001년)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 광주고등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형사단독판사

변호사 정문수 올림

- 입무계시: 2012년 3월 5일
- 입무장소: 전남 순천시 황지동 850-8번지 (광주은행건물 302호)
- 대표전화: (061)746-4100 팩스: (061)746-4300
- 개업소일: 2012년 3월 23일(금) 16:00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여수박람회 “北 참가 끝까지 기다리겠다”

조직위 전시관내 북한관 부지 마련 잇단 초청 요청에도 北은 묵묵부답

“여수에서 천안함·백령도의 아픔을 씻고, 남북 화해의 물결이 출렁일 수 있을까?”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박람회장에 북한관이 들어서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박람회 조직위는 전시관 안에 북한관 부지를 마련해놓고 북한의 참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예고로 남북관계가 더욱 얼어붙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직위는 지난 연말에 세계박람회사무국(BIE)에 북한 초청장을 전달했고, 통일부에도 초청을 요청했지만 18일 현재까지 북의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앞서 조직위는 북한관 용도로 사용 가능한 1100㎡의 부지(사진)를 이미 마련해왔다. 조직위 강동석 위원장의 북한 초청 의지도 강해 개막전까지는 북이 참가할 것에 대비해 이 부지를 그대로 둘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국내외 언론과 통일부 등을 통해 북한이 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있다.
김충석 여수시장도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의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이규형 대사를 만나 북한이 여수엑스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직된 남북 관계가 조만간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조직위 차원의 ‘북 대화장구’가 없어 애만 태우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통일부 측에서 별다른 답변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면서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만약 개막 전까지 끝내 북한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조직위는 북한관 부지를 공연·전시 관련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일부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북한관을 텅 비워둔 채 개막을 하거나, 북한관에서



여수박람회 북한관이 들어설 전시관 외부(위)와 내부 모습.

탈북자 등이 참여하는 관련 행사를 여는 등의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BIE 130번째 회원국인 북한은 지난 2010년 상하이엑스포에 참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밀실공천! 호남학살!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광주·전남 의원중 총선 공약실천 1위 시민단체와 언론이 선정한 우수의원 5관왕

- ▲ 광주 서석초, 서중·일고 졸업
-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동 대학원 석사, 한양대학교 행정학박사
- ▲ 김대중정부 행정자치부차관
- ▲ 노무현정부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무소속 |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조영택

후원회

www.cyt21.net @youngteckcho
후원회 계좌: 농협 611-01-091366 (예금주 조영택후원회)
전화: 062)372-1411